

■ 고사성어 ⑩



양약고구(良藥苦口)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뜻으로, 충언(忠言)은 귀에 거슬린다는 말.

①전하를 통일하고 동아시아 최초의 대제국을 건설했던 진(秦)나라 시황제가 죽자 전하는 동요하기 시작했다. 유방(劉邦:후한의 한고조)은 역전(歷戰) 3년 만(B.C. 206)에 경쟁자인 항우(項羽)보다 한 걸음 앞서 진나라의 도읍 함양(咸陽)에 입성했다.

유방은 3세 황제 자영(子嬰)에게 항복을 받고 왕궁으로 들어갔다. 원래 술과 여자를 좋아하는 유방은 마음이 동하여 그대로 궁중에 머물러고 했다. 그러자 강직한 용장 번쾌(樊噲)가 간했다. "이제 전하는 통일되지 않았나이다. 지금부터가 큰일이오니 지체없이 왕

궁을 물러나 적당한 곳에 집을 치도록 하시오소서."

유방이 듣지 않자 이번에는 현명한 참모로 이름난 장량(張良)이 간했다. "당초 진나라가 무도한 폭정을 해서 전하의 원한을 샀기 때문에, 전하와 같은 서민이 이처럼 왕궁에 드실 수 있었던 것이옵니다. 지금 전하의 임무는 전하를 위해 잔적(殘敵)을 소탕하고 민심을 안정시키는 것이옵니다. 그런데도 입성하시자 재보와 미색(美色)에 현혹되어 포학한 진왕(秦王)의 음악(淫樂)을 배우려 하신다면 악왕(惡王)의 으뜸인 하(夏)나라 걸왕(桀王)과 은(殷)나라 주왕(紂王)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옵니다."



경북 영주생 김교공파 34세 -의력-  
·개인전 4회, 초대그룹전 20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 운영위원, 심사위원 역임  
·영남미술협회 회장  
·유강 서화연구회 원장

유방은 불현듯 깨닫고 왕궁을 물러나 패상(霸上:함양 근처)에 집을 쳤다. ②이 '양약고구'란 말은 <공자가어(孔子家語)>에도 실려 있는데 요약해서 적으면 다음과 같다.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병에 이롭고, 충언은 귀에 거슬리나 행실에 이롭다. 은나라 탕왕(湯王)은 간하는 충신이 있었기에 번창했고, 하나라 걸왕과 은나라 주왕은 따르는 신하만 있었기에 멸망했다. 임금이 잘못하면 친구가 간해야 한다. 그리하면 나라가 위태롭거나 망하는 법이 없고, 집안에 패덕(悖德)의 악행이 없고, 친구와의 사귀도 끊음이 없을 것이다."



어부지리(漁父之利)

어부의 이득이라는 뜻으로, 쌍방이 다투는 사이에 제삼자가 힘들이지 않고 이득을 챙긴다는 말.

전국시대, 제(燕)나라에 많은 군사를 파병한 연(燕)나라에 기근이 들자 이웃 조(趙)나라 혜문왕(惠文王)은 기다렸다는 듯이 침략 준비를 서둘렀다. 그래서 연나라 소왕(昭王)은 종횡가(縱橫家)로서 그간 연나라를 위해 견마지로(犬馬之勞)를 다해 온 소대(蘇代)에게 혜문왕을 설득해 주도록 부탁했다. 조나라에 도착한 소대는 세 치의 혀 하나로 합종책(合縱策)을 펴 6국의

재상을 겸임했던 소진(蘇秦)의 동생답게 거침없이 혜문왕을 설득했다.

"오늘 귀국에 들어오는 길에 역수(易水: 연·조와 국경을 이루는 강)를 지나다가 문득 강변을 바라보니 조개[蚌(방합)]가 조가비를 벌리고 햇빛을 쬐고 있었습니니다. 이때 갑자기 도요새[鷗(흙)]가 날아와 뾰족한 부리로 조개살을 쪼았습니니다. 깜짝 놀란 조개는 화가 나서 조가비를 굳게 닫고 부리를 놓아 주지 않았습니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도요새가 '이대로 오늘도 내일도 비가 오지 않으면 너는 말라 죽고말 것

이다'라고 하자, 조개도 지지 않고 '내가 오늘도 내일도 놓아주지 않으면 너야말로 굶어 죽고 말 것이다' 하고 맞받았습니니다. 이렇게 쌍방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서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운수 사납게 이곳을 지나가던 어부에게 그만 둘 다 잡혀 버리고 말았습니니다. 전하께서는 지금 연나라를 치려고 하십니까, 연나라가 조개라든 조나라는 도요새이옵니다. 연·조 두 나라가 공연히 싸워 백성들을 피폐(疲弊)케 한다면, 귀국과 접해 있는 저 강대하인 진(秦)나라가 어부가 되어 맛있는 국물을 다 마셔 버리고 말 것이옵니다. 혜문왕도 평신으로 이름난 인상여(蘭相如)와 염과(廉頗)를 중용했던 현명한 왕인만큼, 소대의 말을 못 알아들을 리가 없습니니다. "과연 옳은 말이오" 이리하여 혜문왕은 당장 침공 계획을 철회했다.

■ 우강 권이역 전 장관 에세이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2011년 4월 29일 오전 11시 영국 왕세손 윌리엄과 연인 케서린미들턴의 결혼식이 웨스트민스터 사원(Westminster Abbey)에서 열렸다. 윌리엄 왕세손은 케임브리지 공작이, 케서린은 케임브리지 공작의 부인이 되었다. 세기의 결혼식이라고 불리운 이 결혼식은 20여억 명의 세계인이 TV를 통해서 시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부의 웨딩드레스, 엘리자베스 여왕의 의상 색깔 등등이 주목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신부의 웨딩드레스는 순백이었으며, 여왕의 의상 색깔은 황색이었다.

결혼식 때 착용한 윌리엄 왕세손의 예복이 눈을 끌기도 하였다. 그는 육군 '아일랜드 가드' 대령 복장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형의 들러리를 선 해리 왕손은 육군 항공대 대위복장이었다. 또한 그들의 부친인 찰스 왕세자도 해군제복 정복 차림이었다. 이와 같이 결혼식에서 군의 예복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나는 영국의 전통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영국 사람들은 군복을 가장 명예로운 복장으로 여기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가를 수호하는 성스러운 임무를 상징하는 복장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엘리자베스 2세 승계 2순위인 윌리엄 왕세손은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교에 재학 중인 2001년에 캐서린 미들턴을 처음 만났다. 그들은 2010년 10월 20일 약혼하였으며, 2011년 4월 29일 결혼식을 올

렸다. 결혼식에 세계 각국의 귀빈들이 초청된 것은 물론이다. 수백만의 시민이 관람한 위엄과 사치의 상징으로 생각된 세기의 결혼식은 한마디로 위엄과 전통의 상징이기도 하였다. 영국민들은 물론 경건한 마음으로 세기의 결혼식을 맞이하였지만 전 세계인들도 그러하였다.

한편, 결혼식장이 고 스펜서 다이애나(Spencer Diana, 1961. 7.1-1997. 8. 31)비의 장례식장이었던 사실을 생각하면 참으로 삶과 죽음에 대한 관념에서 느껴지는 바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도 성당이나 교회에서 결혼식과 장례식이 올리는 경우가 흔하지만 영국의 경우와 같은 실감, 즉 결혼과 죽음의 일체감이 나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다이애나비는 영국 찰스 왕세자의 비였으나 1996년 8월에 이혼하였다, 이혼 후에는 대인지피 사용금지 운동을 벌여 세계인의 관심을 끌었다. 1997년 8월 31일 파리에서 교통사고로 서거한 것은 주지되어 있는 사실이다. 1981년 7월 찰스 왕세자와 결혼식을 올렸지만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순탄하지 못했다. 그가 1992년 11월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나도 그 모습을 직접 보았다는 사실은 앞서 나의 에세이 6집 '청춘만세'(노동자, P373, 신광출판사, 2011)에서 언급하였다.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Westminster Abbey)에서는 대부분의 영국 왕들의 대관식과 결혼식이 거행되며 이곳은 '더 애비(The Abbey)'라고도 불리는 영국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다. 영



국인들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최고의 수도원이라고 믿어왔다. 이 자리에 수도원이 있었던 것은 약 6세기경이라고 한다. 앵글로색슨의 에드워드 왕은 이 수도원을 노르만 양식의 교회로 다시 건축하였다. 에드워드 왕은 교회의 재단 뒤에 몰렸는데, 그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힌 최초의 왕이다.

1066년 크리스마스 때 정복왕 윌리엄의 대관식이 여기서 거행되었는데 이것이 최초의 대관식이다. 에드워드 5세와 에드워드 8세를 제외한 모든 왕이 이곳에서 대관식을 거행하였다. 원래의 노르만 양식교회는 13세기까지 존재하였고, 헨리 3세가 현재의 모습으로 재건했다고 한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아름다운 고딕양식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스테인드글라스로 유명하다. 또한 왕들이 앉았던 의자, 1723년에 처음으로 연주되었던 오르간, 박물관 비록 등도 전시되고 있다. 저명인사의 묘도 많다. 특히 남쪽 익랑(翼廊)에는 스펜서, 테니스 등 많은 유명인들의 무덤이 있어서 '시인의 코너'라고도 불린다. 예배는 정기적으로 시행되는데, 일반 방문객들도 참석할 수 있다. 매년 3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한다고 한다. 나도 세 차례 방문하였다.

이곳에서 세기의 결혼식이 열렸는가 하면, 윌리엄 왕세손의 모친 다이애나비의 장례식도 거행되었으나 우리들의 감정으로서는 희한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그리고 결혼과 죽음이 결코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더욱 나아가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도 또다시 생각하게 된다.

재미있는 나무 이야기 ⑥

라일락

■ 靑南 權寧漢 (안동전문대학연구회장)

향기 높은 꽃으로는 목련, 백합, 장미, 난 등 수없이 많지만, 라일락도 또한 어느 꽃 못지 않게 달콤한 향기가 아주 진한 봄꽃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라일락을 가장 감미롭고 로맨틱한 꽃으로 치고 있습니다. 작은 나팔 모양인 꽃의 색깔로나 그 진한 향기로나 하트 모양을 한 잎의 모양으로 보나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향기 높은 라일락은, 한 동네에 한 그루만 있어도 그 동네에 들어서는사람에게 늘 좋은 향기와 봄 냄새를 물씬 풍겨줍니다.

질이나 역하지 않고, 달콤하나 천하지 않는 그 향기는 소녀의 향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짧고 감렬한 향기 그러나 자극적이고 독하지 않는 향기, 청량제와도 같이 가슴을 후련하게 해 주는 향기인 것입니다.

이러한 라일락의 특성 때문에 꽃말도 '청춘' 혹은 '젊은 날의 회상'입니다. 젊은 날의 추억은 라일락의 향기만큼이나 달콤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푸레나무과에 속하는 낙엽 관목인

이 꽃은 아프가니스탄 원산이나, 우리나라 황해도와 평남·함북의 석회암 지대에 도 이와 비슷한 '수수꽃다리'라고 하는 꽃이 자생하는데, 꽃 모양이나 잎의 생김새, 향기 등이 모두 라일락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라일락을 우리말로로는 '서양의 수수꽃다리'라고 하는 꽃이 자생하는데, 꽃 모양이나 잎의 생김새, 향기 등이 모두 라일락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라일락을 우리말로로는 '서양의 수수꽃다리'라고 하니 웬지 촌스럽고 산뜻한 라일락의 낭만이 사라지는 듯 합니다.

라일락이라는 말은 영어 이름이고, 프랑스 말로는 '리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에는 흰빛 리라꽃은 젊은 여성들만 몸에 지닐 수 있다고 합니다.

이름도 곱고, 향도 좋고, 꽃도 잎도 모두 좋아서 리라꽃은 사랑만큼이나 달콤해서 많은 사랑 노래 가사에도 잘 등장합니다.

1960년경 전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베사메 무초'라는 노래 가사에도 리라꽃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정말로 신비로운 것이며 리라꽃 향기만큼이나 달콤한 것이고,

■ 역사기행

불사이군 충절을 지킨

사복재(思復齋) 권정(權定) 선생의 유적지를 찾아서

■ 향촌 권오창 (본원 자료위원)



△반구정 봉송대(영주시 영주2동)

중앙선 철도 역주역에 하차하면 북쪽으로 죽령과 소백산을 바라보는 영주시 내 한 북반에 구성산을 볼 수 있다.

이는 보기 드문 명승지이고 산성에는 가학루가 서 있고 천연공원화가 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구성산 성지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안동권씨 세거지가 있다.

이곳에 정착한 안동권씨는 사복재 권정선생의 후손들이다.

사복재 권정선생은 고려가 망하고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하자 공은 김해부사(金海府使)의 관직을 버리고 고향인 안동땅 깊숙이 있는 임하현 옥산동 도목지실어촌에 은둔하면서 호를 사복재라 자칭하고 지냈다.

이는 고려왕조가 다시 회복할 것을 생각한다는 뜻이다.

또한 그 곳에 반구정(返舊亭)을 짓고 대(臺)를 봉송대(奉松臺)라 하여 날마다 봉송대에 올라가서 북쪽 송도(松都)를 바라보면서 망배풍곡하며 고려사직이 회복할 것을 기원 항거하였다.

공은 고려부사 현(顯)의 아들로 1353년 안동부 예안현 북계촌에서 출생하였다. 공은 타고난 기풍이 영특하고 학문과 덕행이 남보다 뛰어나서 강명칭직 하였을 뿐만아니라 성리학에 조예가 깊었다.

1385년에 문과에 급제 하였는데 맹사성(孟思誠)과 길재(吉再)와 동갑으로 동방급제하여 충정도 괴산 군사를 지내고 내직으로 발탁되어 좌사간(左司諫)에 올랐다.

그러나 이성계에 의하여 최영(崔瑩)이 주살되고 조민수 이색 등이 유배되자 공은 여러 가지 부당한 정치세력에 반대하는 측면에 섰기 때문에 멀리 김해부사로 좌천 당하였다.

이때가 공의 나이 38세였다.

그해 포은 정몽주가 선죽교에서 피살당하고 2년 후 이성계가 고려를 멸하고 조선을 개국하게 된다.

이성계는 학문과 인품이 높은 고려 유신들을 포섭 회유하는 정책을 써서 공

에게 사자를 보내어 소명하고 승직을 임명하였으나 불응하였다. 그후 대종 이방원(李芳遠)이 대사간 대사헌을 임명하였지만 공의 지조를 굽히지는 못하였다.

공은 단호히 명(命)을 버리고 의(義)를 지켜서 일관단심 불사이군의 충심절의 하였을 뿐 배반한 이씨 조선의 녹(祿)과 벼슬을 마다하고 고향에서 초옥을 짓고 자연을 벗삼아 고결한 삶을 살다가 1454년 8월 11일에 물러나 59세이였다.

그때 사람들이 공이 은거한 마을 이름을 벼슬을 버렸다 하여 기사리(契士里)라 하였고 그곳 유희비를 세워서 공의 고결한 절의를 높이 받들었다.

그러나 후손들은 이조(李朝)에 와서 유리방황하며 숨어 살아야 하였고 벼슬 길에도 나가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다가 보니 고려왕조로 돌이킨다는 뜻의 반구정(返舊亭)을 반구정(返驕亭)으로 고려의 서울인 송도(松都)를 받든다는 뜻으로 봉송대(奉松臺)를 봉송대(鳳松臺)로 현관을 일시적으로 바꾸어 달기도 하였다. 그 후 반구정은 영주시 구성 산록에 이전하였고 봉송대는 영주시 동구대 큰 바위산에 이전 되었다.

이러하다보니 공의 묘(墓)가 실전되어 오다가 1726년에 묘소를 찾아 재사가 건립되고 묘비가 건립되었다.

비문에는 이조(李朝)의 관직을 쓰지 않고 고려좌사간 사복재 권정선생이라고 명각하였다.

1804년 구성산 아래 공의 절의를 추모하는 사림(士林)에서 위패를 봉안하고 사호를 구호리사(龜湖里社)로 하고 묘호는 경절사(景節祠)로 당호는 명교당(明敎堂)으로 하였다.

1813년에는 영남유림의 사론으로 리사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아름답고 사랑스럽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돌 하나도, 들판에 난 이름 모를 풀 한 포기라도 좋지 않

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뜨겁게 사랑받던 어느 여인이 지금은 싸늘하게 식어가는 남자 애인에게 다시 옛날처럼 진한 사랑을 갈구하나, 한번 돌아서버린 남자의 마음이 쉽게 돌아오지 않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서 '거짓이라도 좋으니 날 사랑한다고 말해주요.'하는 애절한 뜻이 담긴 사랑의 노래입니다. 이상간의 사랑이든 험육간의 사랑이든 혹은 친구간의 사랑이든 사랑은 이와 같이 간절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모든 사람 가슴속에 무엇이든 뜨겁게 사랑하는 곱고 더운 마음이 충만하다면 우리 사회는 더 밝고 따뜻한 사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라일락에도 여러 가지 많은 품종이 있으나, 우리는 흔히 꽃 색에 따라 흰꽃 라일락과 보라빛 라일락으로 구별합니다. 모두 향기가 좋으나, 보라빛 라일락이 더 감미로운 것 같습니다.

마당이 없는 아파트 등에 사는 사람은 라일락을 절화로, 꽃병에 한 송이만 꽂아도 온 집안이 감미로운 꽃향기로 가득 찰 것입니다.

머리털을 살리자②

■ 권영방 (수의학박사)

(지난호에 이어)  
9. 탈모 습관 Vs 발모 습관  
①잘못된 손바릇?(삼푸질?입니다)  
②발모를 망치는 탈모 습관  
③삼푸 방법에 따라 탈모와 발모가 결정된다.

10. 탈모 극복 최고의 비결→발모팩  
(1) 발모팩 재료(어성초, 자소엽, 녹차잎, 담금주(소주 30%) 항산화작용 상승  
①발모차와 비슷한 어성초, 자소엽, 녹차잎  
②발모차와 재료는 비슷하나 효과는 3-5배 이상  
③발효과정을 통해 발모 효능 상승 ↑  
(2)발모팩의 특징  
①항산화작용 상승 ②발모촉진 ③혈액순환 개선  
(3)재료 선택시  
①어성초:생 잎 ②자소엽:마른 잎 ③녹차잎:마른 잎

(4)발모팩 제조법(발모팩 만드는 법)  
①어성초, 자소엽을 흐르는 물에 헹구니다.  
②어성초(20g), 자소엽(10g) 녹차잎(10g) =2:1:1을 잘게 잘라서 유리병 용기에 넣는다.  
③증류주(담금주 소주 알코올 30%) 1.5 l 유리병에 넣는다.  
④유리병 용기에 공기가 통하지 않게 밀봉한 후 3개월간 발효시킨다.  
⑤뚜껑에 3-4개 숨구멍을 만들어 주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됨  
※탈모 극복 최고의 비결 발모팩 완성  
(5)발모팩 활용 방법(스킨 대신)  
얼굴에 바르면 피부에 효과적(뾰루지, 가려움, 여드름)트러블 예방  
(6)반짝이는 두피  
①얇은 두피증 ②유분 생성 증가  
(7)발모팩 사용법  
①아침, 저녁 머리를 감은 후 두피가 젖



은(촉촉한) 상태에서 발모팩을 두피에 뿌린다.

②두피를 마사지 하듯 손가락으로 톡톡 친다.  
③하루 두 번 머리를 감았더니 오

히려 빠지는 머리카락 감소  
④머리를 안 감으면 두피 피지선이 과도하게 증가→탈모 효소 증가!  
⑤아침, 저녁 머리감는 것이 탈모 예방  
11. 발모 식단 Vs 탈모 식단  
(1)발모법: 현미, 차조, 수수  
①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효소, 섬유질 풍부  
②차조, 수수, 구리, 아연 함유량 많아 탈모소염제, 발모촉진  
③머리를 검게하는 식품은 블랙푸드가 아닌 현미에는 트립토판 섬유 함유→머리를 검게하는 효과  
④현미:나쁜 동물성 단백질로 인한 중금속 제거 (끝)